

## 농촌진흥청 개발 열풍건초, 익산 승마장에 공급

- 5월 22일 익산 승마장서 열풍건초 공급 계약 체결
- 국립축산과학원·익산시·한국마사회 열풍건초 안정 공급 지원 협약
- 말산업계에 열풍건초 유통 확대 기반 마련 ... 수입건초 대체 효과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5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공승마장에서 익산시, 한국마사회와 함께 열풍건초\* 안정 공급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분 40%의 풀사료를 20% 미만으로 말린 건초

이와 함께 열풍건초를 생산하는 풀사료 경영체(신용안영농조합법인)는 익산시 공공승마장과 열풍건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풀사료 수확 철에 잦은 비로 건초 생산이 어려운 국내 여건을 극복하고, 풀사료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자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이번 공급 계약 체결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열풍건초 5톤을 올해 익산시 공공승마장에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본격 공급에 나서 수입건초를 대체할 방침이다.

이번 열풍건초 공급 계약은 지난해 한국마사회와 맺은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열풍건초 이용 확대'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두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열풍건초 경주마 급여시험, 열풍건초 인식 조사, 말산업 학술토론회 개최 등에 협업해 왔다.

2023년 열풍건초를 경주마에 시범 급여하고, 마사회 조교사를 대상으로 인식 조사한 결과, 열풍건초 장점으로 '급여 편리'(30%), '이물질 적음'(21%)을 꼽았다.

익산시는 승용마 활성화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2022년부터 공공승마장을 운영하며 재활 승마장, 원형 승마장, 승마 체험 공간 등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익산시 공공승마장 이상동 수석 교관은 "국내산 열풍건초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가격이 불안정한 수입건초를 대체할 수 있어 승용마 목장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과 한국마사회는 이번 익산시 공공승마장 열풍건초 공급을 시작으로 승용마뿐만 아니라 경주마까지 열풍건초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이상훈 과장은 "열풍건초가 말산업에도 널리 이용돼 풀사료 농가 소득향상과 말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붙임. 열풍건초 공공승마장 계약 체결식 계획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책임자	과 장	이상훈 (041-580-6740)
		담당자	연구사	정종성 (041-580-6748)

## □ 추진목적

- 말 산업 이용 확대를 위한 익산시 공공승마장 대상 열풍건초 공급 추진
  - 승용마 대상 국내산 열풍건초 생산 및 현장 보급 기반 구축
  - \* 열풍건초 말 이용 활성화 MOU(축산원-마사회, '23. 11. 24.) 후속조치

## □ 행사개요

- 일 시: '24. 5. 22., (수) 14:00 ~ 15:00
- 장 소: 익산시 공공승마장(본관) \* 전북 익산시 용안면 강변로 1105
  - \* 협약식: 익산시 공공승마장 본관 회의실(2층)
  - \* 전시장소: 익산시 공공승마장 주차장
- 업무협약: 국립축산과학원-익산시-한국마사회
- 공급계약: 열풍건초 생산 농가-익산시 공공승마장

## □ 행사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10	10'	티타임 및 인사 말씀	회의실
14:10~14:20	10'	계약체결 및 기념촬영	회의실
14:20~14:40	20'	열풍건초 전시물 소개	정종성 연구사 (주차장)
14:40~15:00	20'	열풍건초 승용마 급여 시연 및 활용효과 소개	이상동 교관

## □ 금후계획

- 승용마 대상 열풍건초 이용에 따른 급여 효과 분석(5~11월)
  - 열풍건초 소포장 공급(축산원) 및 승용마 대상 급여시험 추진(마사회)